

▶▶ 대한전기협회 제41회 정기총회

개 회 사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전기협회 제41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전원개발로 전체 발전설비용량이 6,224만kW를 넘어 전력대국이 되었고, 140만kW급 차세대 원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력산업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 개성공단에 분단이후 최초로 전력을 공급하였고, 220볼트 송압사업을 1973년부터 시작하여 32년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변전설비용량도 1961년 120만kVA에서 35년만에 166배로 증가하여 2억kVA를 달성하는 등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시는 회원 여러분과 전기업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에도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금년에 추진할 중점사업으로는 지난 4년 동안 다섯 개로 고시하여 운영중인 기술기준을 하나의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 협회의 주요사업인 KEPIC의 5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기기술 국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4월 10일 전기의 날을 전후하여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매년 『한·일 전기기술 컨퍼런스』를 상호 개최하여 양국간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전력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전력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전기계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전기계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 열심히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 이 정기총회가 대한전기협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에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원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24일

大韓電氣協會 會長 韓竣皓